

北, 이틀연속 서해상 도발...연평도 북서방에 해안포 60여발 쏘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계부터 2시간 동안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이 넘는 해안포 사격을 한 바 있다. 북한군이 6일 서해상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며 이틀 연속 도발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경까지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으며 이들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2배 이상인 40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행위 금지구역내 지속적인 포병사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즉각 끝(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원칙에 따라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5학년 1반 전지우, 2024. 전교학생 임원선거에서 회장 당선돼...

지난 5일, 안남초등학교에서는 2024. 전교학생임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오전 9시 50분, 후보자 연설을 시작하였으나 시종 문제로 인해 방송 장비가 오류가 나서 학교 전체가 꺼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후보자 연설이 3교시로 미뤄졌다. 오류가 났을 땐 방송 장비를 리셋 시키면 해결이 되지만, 하는 방법을 몰라 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체육관에서 연설을 진행하였다. 체육관에서 연설을 진행하던 도중 스피커에서 뻘~ 소리가 나서 유선에서 무선으로 마이크를 교체 하였다. 개표 결과, 회장은 5학년 1반 전지우, 부회장은 5학년 3반 곽진욱, 5학년 부회장은 4학년 3반 김은성이 당선되었다. 종업식과 졸업식은 2월 8일, 설날 연휴 전날에 진행된다. 종업식 방송은 아침 시간에 진행 될 예정이며, 졸업식은 2교시가 끝난 직후인 10시 30분에 체육관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박성빈 기자

ABS 신작 드라마 범행도시, 역대급 스케일이라고 밝혀...

ABS에서 아침차게 준비한 ABS 신작 드라마 범행도시가 ABS에서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역대급 스케일이라고 ABS 회장은 밝혔다. ABS 드라마 범행都市는 오늘(15일)부터 19일까지 촬영이 이루어지고, 20일부터 28일까지 편집 기간이다. 안남초등학교 개학식인 29일에 드디어 공개된다. ABS는 아침차게 준비한 만큼 촬영 장비는 최신인 갤럭시 S23을,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2023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드라마 길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ABS 회장은 말했다. 지금까지 A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줄줄이 실패하면서 학생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으나, ABS에서 역대급 스케일로 만든 범행都市는 학생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범행都市 이후로는 2주 뒤에 종업식이 있어 추가적인 다큐멘터리, 드라마 촬영은 어려울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ABS 직원과 학생들은 “오일 신문만 놔두고 온라인으로 공유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빈 기자 강현우, 김민정 생일 선물을 위해 5만원을 앞단 준비해놓았다. 학생들 "혼돈스러워"

강현우가 김민정 생일 선물을 위해 5만원을 준비해놨다고 밝혀 충격입니다. 1월 13일, 김민정의 생일이었습니다. 강현우는 5만원은 일단 준비해놓았지만, 무엇을 살지는 모르겠다고 저번에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5만원이라는 고가의 금액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인터뷰 해보니 생일선물은 이미 샀고, 학원에서 전달해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해도 무엇을 샀는지는 말해주지 않는 상황, 과연 무엇을 샀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5학년 1반 커플들은 모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손유진 기자

"北김정은, 할아버지처럼 '전쟁' 결정한 듯...허세 아닐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빈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

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위비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숨이었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그걸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 등으로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약제력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두 학자는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 북한을 약제할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차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한미일 군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그가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적 해법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 같을 수 있지만 역사는 다른 좋은 선택자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인하는 이들은 가장 위험한 계급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기사 QR

기사 1



기사 2



추가 기사